

李대통령, 그냥 갔다

“F1·방사광 가속기 등 지역현안 검토해보겠다” 원론적 답변만

2년 만에 광주를 찾은 대통령의 ‘선물’은 없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중앙부처의 무관심 속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기대했으나 결국 실망감만 커졌다.

〈관련기사 3면〉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1 지역발전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개

막식과 뒤이어 열린 지역 주요인사와의 오찬 등에서 건의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한 뒤 귀경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정부부처가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표명과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광주는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과 방사광 가

속기 건설, 전남은 F1 대회 국비 지원과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노선 신설 등이 최우선 숙원사업이었다.

160여 명의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오전에서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광주시를, 고석규 목포대 총장이 전남도를 대변해 지역현안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이 자꾸 낙후돼 있다 고 여기는 생각을 버려야하며 광주시

와 전남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즉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공항에서 개막식 행사장까지, 개막식 행사장에서 광주마스터교까지 이 대통령과 동승하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동북아 상품거래소의 사업단이라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끈기있게 요청했더니 직접 챙겨보겠다고 한 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을 들어보겠다고 했다”며 “그동안 관계 정부부처에서 아예 반응조차 안 했던 것과 비교할 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막식 축사에서 “올해 F1대회와 내년도 여수엑스포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각 시·도가 품앗이하듯 서로 도우면 대회가 성공할 것”이라고 해 국비 지원을 바라는 지역민의 여망을 비켜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양홍철 대전시장, 김법일 대구시장 등 시·도지사들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지역인사 등이 참석했다.



7일 오전 ‘2011 지역발전주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1년 9개월 만에 광주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광주·전남사전기자단>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 걷자, 가을속으로

나주 영산강길·담양 수목길 걷기대회

청명한 햇살, 코스모스가 손짓하는 강길 들길을 따라 함께 걸읍시다.

해마다 가을 걷기대회를 개최해온 광주일보사는 올해 2개의 명품 걷기코스를 선정,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전남의 자연속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걸으며 건강과 낭만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모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10월 8일(토) 나주 영산강길 걷기대회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와 새로 단장된 영산강 강변도로를 따라 걷는 코스입니다. 남도민의 애환을 담고 흐르는 영산강의 물결을 따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낮 1시 죽산보 대지에출발

■ 10월 22일(토) 담양 수목길 걷기대회

전국적 명소인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따라 영산강의 발원지인 용소, 담양천과 관광제길을 걷는 코스입니다. 가을빛 가득한 슬로시티 담양의 수목길에서 멋진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낮 1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광장 출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나주시·담양군
주관: 광주일보사 문의:062-220-0541

U대회 경기장 입지 공청회 예정대로

광주시 15일까지 최종 입지 결정 마무리

광주시는 7일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신설경기장 입지선정 용역에 대한 보완지시를 서둘러 마친 뒤 8일 오후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재심의 후 9일 시민공청회 등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

실상 추측 명절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입지선정 용역에서는 재정부담 및 경제성, 접근성 등의 항목을 세분화한 구제적인 수치 등을 점수화해 수렴장은 남부대, 다목적체육관은 광주여대, 양궁장은 조선대 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시균발위 위원

들은 6일 오후 심의에서 항목에 대한 가중치의 임의 설정, 정책적 판단 가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각 항목에 대한 단순평가와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 뒤 분석 등을 용역업체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역 결과보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와 도시균발위는 기존 일정대로 오는 15일까지 시민공청회와 최종 입지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시균발위 한 위원은 “어차피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진 만큼 논의를 계속할수록 논란과 갈등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업체에서 균발위 위원들의 지적을 어느 정도 잘 보완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인·소득세 추가인하 철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3년 만에 철회됐다.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 계획을 철회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금까지 35%가 유지된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또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는 반면 장수 중소기업의

‘가업(家業) 물려받기’에는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빼주기로 했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자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인다.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에는 30% 공제율에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년만에 부활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해준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안은 애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이날 오전 당·정·청 고위 당정 결과에 따라 갑자기 추가됐다.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2억원 초과 구간을 500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2억~500억원’에 대해선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내리되, ‘500억원 초과’에 대해선 22%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을 늘린 만큼 더 내는 사회보험료를 2013년까지

2년간 세액에서 빼준다. 청년 순증 인원은 100%, 그밖의 순증은 50%를 빼준다. 또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특수관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거래비용(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용 - 30%)과 과세대상자의 3%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에 증여세(세율 10~50%)를 물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제 F1이다.

Formula 1™

“200만 도민의 힘을 모아 F1대회 성공을 일구어 냅시다”

2011 F1 코리아그랑프리
2011. 10. 14(금)~16(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K-POP 콘서트
- 10.15(토), F1 경주장

F1과 함께하는 남도 방문의 달(10. 1 ~ 10. 23)
- F1티켓 소지자 전남도 내 관광지 무료 입장

WEEKEND

Grandstand G
Block 108 Row 4 Seat 24

T0034597515

2011 FORMULA 1 KOREAN GRAND PRIX

OCT. 2011
14/15/16
Friday
Saturday
Sunday

T0034597515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nnam

티켓구입처 _ 공식홈페이지(www.koreangp.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농협, 광주은행